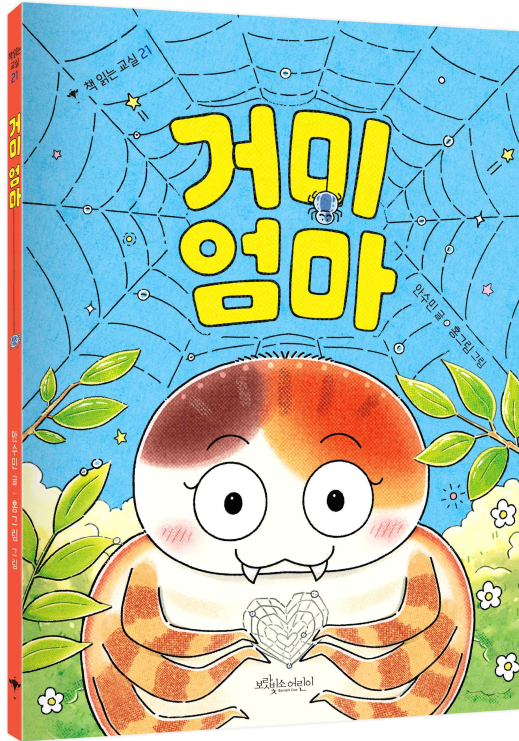


<거미 엄마>

독서 활동지



안수민 글 · 홍그림 그림 | 보랏빛소어린이 펴냄 | 2024년 3월 31일 출간 | 무선제본
124쪽 | 166*222mm | 14,000원 | ISBN 979-11-93010-76-4 (74810) | 초등 3~4학년 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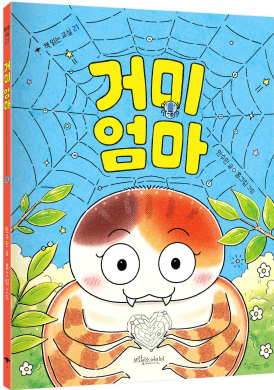
“엄마가 거미로 환생했다고?”

거미줄처럼 끈끈한 사랑으로 아픔을 극복하는
하온이 가족의 힐링 성장 스토리

● 초등 교과 연계

- 3학년 도덕 <3. 사랑이 가득한 우리 집>
- 3학년 2학기 사회 <3. 가족의 형태와 역할 변화>
- 4학년 2학기 국어 <9. 감동을 나누며 읽어요>

<거미 엄마> 독서 활동지



책을 읽기 전, <거미 엄마>의 표지를 살펴보고 아래 물음에 자유롭게 답해 보세요.

이 책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Blank dashed box for answer.

주인공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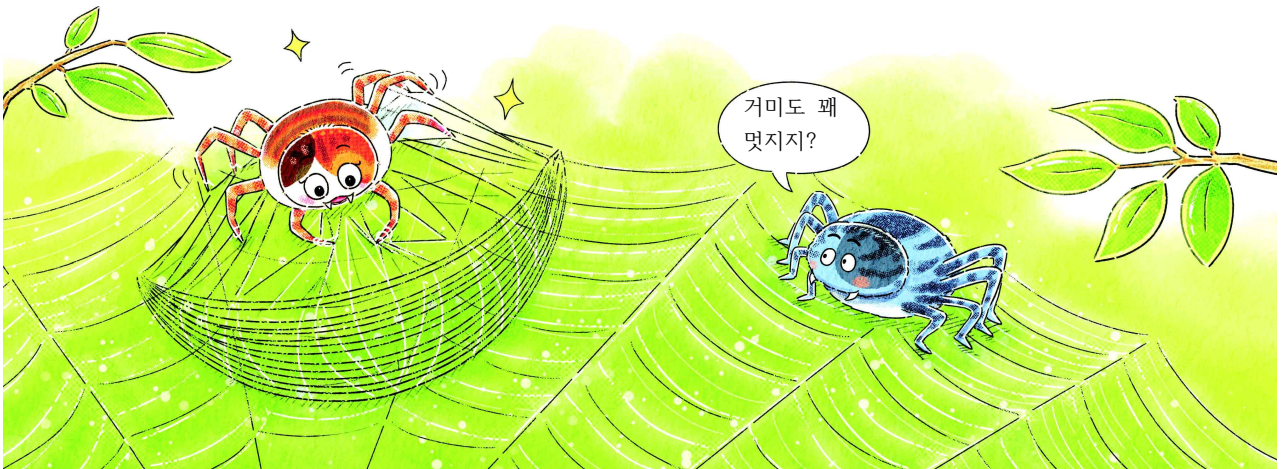
Blank dashed box for answer.

앞으로 어떤 내용이 펼쳐질 것 같나요?

Blank dashed box for answer.

<거미 엄마> 독서 활동지

거미가 된 엄마는 처음에는 거미가 된 모습이 속상했어요. 하온이를 보러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거비의 도움으로 거미줄을 엮어 멋진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지요. 만약 내가 거미가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글과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아요.



<거미 엄마> 독서 활동지

책 속 등장인물들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엄지

“맙소사, 내가 □□라니!”



거비

“□□이 그렇게 보고 싶으면,
보러 가면 되잖아!”



하온이 아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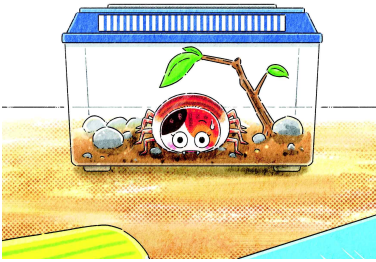
“하온아, 올해부터는 □□ 가면
안 될까?”



주하온

“엄지가 □□에서 잘 적응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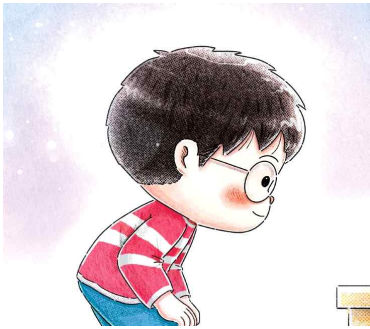
<거미 엄마> 독서 활동지



이 책의 주인공 하온이는 엄지를 '반려거미'로 삼아 키우기로 했어요. 여러분도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키워 본 적이 있나요? 나의 반려동물을 아래에 그려 보세요. 만약 경험이 없다면 어떤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지 상상해서 그려 보세요.

A large, vertically oriented rounded rectangle outlined with a blue dotted line, intended for a drawing activity.

<거미 엄마> 독서 활동지



이 책의 등장인물 하온이에게는 말 못할 상처가 있었어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래 물음에 자유롭게 답해 보세요.

하온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blue dotted border, intended for the student to write their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하온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blue dotted border, intended for the student to write their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

하온이는 앞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blue dotted border, intended for the student to write their answer to the third question.

<거미 엄마> 독서 활동지



인간이었던 하온이의 엄마 '김현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에 거미로 다시 환생했어요. 내가 만약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은가요? 글과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그 이유는...

<거미 엄마> 독서 활동지

책을 다 읽고 나니 어떤 기분이 드나요? 책 속 등장인물을 골라 자유롭게 편지를 써 보아요. 주인공 엄지나 하온이에게 써도 좋고, 거비나 하온이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도 좋아요.

